

버밍엄 문화연구에 대한 재고찰과 '비재현적 문화연구'의 필요성

스튜어트 홀과 주요 연구자들의 사유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박성우 우송대학교 방송미디어학부 조교수*

이 글은 '비재현적 문화연구'에 대한 소개와 필요성, 시급함에 대하여 버밍엄 문화연구의 재고찰을 통하여 이야기한다. 더불어 어떻게 비재현적 문화연구라는 지적 기획이 추상적 구분과 재현적 담론이 주도했던 그 동안의 주된 문화연구적 사고와 방법론에서 빈번히 배제되었던 세계의 양식들에 강조점을 두어 이를 읽어 내는지 살펴본다. 대표적으로 스투어트 홀의 주요 저작과 후기 생애에 대한 실천적 모습을 통해 비교적 익숙한 모습의 버밍엄 문화연구 한계를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문화연구, 특히 한국의 문화연구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했다. 이 글에선 주로 후기 스투어트 홀의 사유와 현실에 밀착된 방법론의 관계성 그리고 그 방향성을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사실 한국 문화연구는 버밍엄 문화연구와 특별히 연구 방향성과 주제의 부분에서 거의 같은 것으로 여겨져 왔고, 우리 비판언론학계에 서 이러한 이른바 '전통적 영국 문화연구'의 영향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는 매우 한국적이며 특수한 현상일 뿐이다. 그 점을 스투어트 홀의 대표 저작들에 대한 재독해와 이에 기반을 두어 후기 삶의 실천적 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조금이나마 발견해 보고자 했다.

KEYWORDS 비재현적 문화연구, 스투어트 홀, 버밍엄 문화연구, 한국 문화연구

* licjpsw@gmail.com

1. 들어가며

어느덧 ‘비재현적 문화연구’는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여기엔 질 들뢰즈(Gilles Deleuze),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 나이젤 스리프트(Nigel Thrift), 마크 한센(Mark Hansen) 혹은 베르나르 스티글레르(Bernard Stiegler)와 같은 이름들이 이론적인 면에서 주로 함께 하고 있다. 이 글은 비재현적 문화연구라는 연구 경향이 무엇인지,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 내며 조정된 담론적 여정으로서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시공간과 주체성을 사유하는 독특한 양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비재현적 문화연구의 구체적 사례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른바 ‘비재현적 문화연구’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문화연구 전통 속 새로운 지적 기획 혹은 비판의 현실적 맥락화 작업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이는 곧 너무 익숙한 표현이 되어 버린 문화연구, 특히 스투어트 홀 진영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버밍엄 문화연구에 대한 인식론적 중지, 확장 작업이자 동시에 이를 통해 전통적 버밍엄 문화연구가 방법론적으로 추구했던 사유와 연구 범주의 재해석에 기반한 한국 문화연구 진영의 실천적 모습, 이 모두가 절실한 국면이 바로 ‘지금 여기’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주되게 고려되거나 인식되지 않았던 현실 세계에서의 다양한 결합들과 갈라짐의 모습들이 특히 ‘지금 여기’ 혼재하는 시공간성 속에서 더욱 가시적이며 가속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른바 비재현적 문화연구라는 지적 기획은 추상적 구분과 재현적 담론이 주도했던 그 동안의 주된 문화연구의 사고와 방법론에서 일정 정도 배제되었던 세계의 양식들에 강조점을 두어 이를 읽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비재현적 문화연구는 확장된 개념으로의 자본, 상품, 사물, 물질성을 주체의 이동, 변화의 과정 그리고 언제나 존재하는 방해와 잡음에 충분히 집중하면서 시간과 공간, 주체와 객체, 환경과 기술을 새로운 시선과 방식으로 되살리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러한 비재현 이론가들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라투르(Latour, 2010)가 이야기한 것처럼 ‘객관적 시공간과 주관적 시공간을 넘어 여기 어디에도 있지 않는, 즉 제3의 의미로서의 과정(process) 혹은 흐름(flow)’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비재현적 문화연구는 버밍엄 문화연구의 재해석이자 수정, 확장이라는 연구 기풍 혹은 자세이며 그런 점에서 문화연구에서의 어떤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강조다.

한편, 국내외 여러 사회철학자, 문화연구자들¹⁾이 꾸준히 이야기했듯이 문화연구는 ‘자유로운 재해석의 경향(Curran, 2006)에 의해 강력하게 추동된다고 할 만큼 여러 다른

학술적, 지적 전통의 더하기²⁾라는 특징을 분명히 가진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 연구 과제로서 문화연구의 제 영역은 언제나 다양한 관점들과 함께 분석, 검증되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져 왔다.³⁾ 실증적 연구, 수용자 연구, 비판 이론, 정치경제학, 정신분석학, 전지구화론, 그리고 포스트 식민주의와 같은 영역들은 문화연구의 흐름 속에서 잘 더해진 이러한 대표적 관점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문화적 대상이나 매체, 환경의 흐름이나 유동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는 어떤 면에선 매우 징후적인데 오랫동안 주로 진행되어 온 텍스트, 상품소비, 수용자, 재현, 담론을 중심으로 한 문화연구의 연구 경향들이 지금까지의 문화연구에 새로운 더하기의 기풍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꾸준한 결핍을 두드러지게 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류적인 수용자, 재현, 담론 연구들은 자기 생성적이며 끊임없이 차이, 경계, 기억, 흔적을 생성하고 허물며 유동하는 문화적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차이, 경계, 기억을 지속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내는 구조적인 생산양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한국의 미디어 문화연구 경향성에서도 역시 핵심적 연구 영역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 문화연구에서는 수용자, 메시지, 담론, 재현에 대한 연구 경향이 여전히 강력하며, 진행 중인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10년 이상 매년 여름이면 계속 열리고 있는 미디어 문화연구 진영의 학술 행사인 문화연구캠프에서의 발표문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집중화된 한국적 문화연구 경향성에 대해 어렵지 않게 참조할 만하겠다.⁴⁾ 더욱이 이러한 문화연구 진영에서의 경향성 때문에 미디어 문화 생산과 흐름의 과정에 대한 우리의 관심 역시 종종 노동 조건 연구 정도로 간단히 취급되어 버리거나, 혹은 생산과 관련한 정책 연구, 개별 미디어 기구 혹은 예술가들의 특수성 논의 정도로 주로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일찍이 머독(Murdock, 1982), 홀(Hall, 1997)과 같은 연구자들조차 분명하게 언급한 적 있듯이, 대중문화의 생산 과정은 뛰어난 작가가 고정적 텍스트를

1) 국내 연구들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원용진(2001), 술이부작과 빛나간 번역: 우리 문화연구의 반성과 전망, 〈한국언론학보〉, 4권 5호; 원용진(2007), 미디어 문화연구의 진보적 재조정, 〈문화과학〉, 5권 1호; 이영주 외(2008), 현존하는 적대, 부재하는 이론: 미디어문화연구의 비판적 성찰, 〈비판언론학 20년의 성찰과 전망〉이 있다

2) 여기서 더하기는 추가하기보다는 확장시키기를 의미한다.

3) 그런 점에서 경전으로의 문화연구를 찾아 기대고 고수하려고만 하는 방식은 가장 비문화연구적 모습일 수도 있다.

4) 가장 최근인 2014년 8월 한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2회 문화연구캠프에서의 발표문을 살펴보면 특별 세션을 포함한 전체 23개의 발표 글 가운데 무려 20개가 텍스트, 담론 분석 혹은 재현에 대한 주제였다(2014 문화연구캠프 프로그램 참조). 그동안 문화연구캠프에서의 발표는 대부분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연구를 지도하고 함께하는 교수, 연구자들은 대부분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 미디어 문화연구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국내 미디어 문화연구의 연구 경향성과 집중화 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만들거나 독립적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오늘날 대중문화 생산의 과정은 문화 대상, 조직, 환경 그리고 수용자 실천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구성적 방식의 지속적, 반복적이고 모방적, 자기 생성적인 흐름의 축적 과정인 것이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의 대중문화는 산업과 자본이 고안한 알고리즘, 플랫폼, 포맷 등에 자발적으로 차이를 만드는 각각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현상이다. 오래된 그들의 이야기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해 보인다.

2. 비재현적 문화연구에 대하여

1) 역사와 인식

그렇다면 비재현적 문화연구는 무엇이며 그 근원은 어디인가? 이 연구 경향의 근원은 세 가지 흐름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는 다름 아닌 버밍엄 문화연구 그 자체다. 1990년대 전 세계를 강타했던 버밍엄 문화연구라는 일련의 지적 기획은 사회과학을 덜 구조적으로 다루면서도 강력한 담론 구성을 이야기하며 한층 직접적이면서 정치적인, 그러면서도 연구자의 입자에선 다소 덜 수고스러운 듯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버밍엄 문화연구 진영은 어떠한 담론, 특히 뉴스 미디어와 대중문화와 관련한 담론이 언제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허구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와 정치경제 그리고 세상을 번역할 수 있는 기호학적 토대를 이야기하려 했다. 더불어 태도와 지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버밍엄 문화연구는 마르크스를, 특히 그의 방법론적 입장을 재독해하며 등장했고⁵⁾ 근대성, 식민주의, 젠더와 페미니즘, 자본주의 등의 문제와 접합할 때에도 언제나 포스트의 관점에서 기존 흐름과 경과를 추적하며 수정, 재해석하는 태도 속에서 성장했다.⁶⁾ 이렇듯 버밍엄 문화연구 진영의 연구 기풍은 유연하고 열린 방식의 정치경제학적, 구조적 방법론을 일면 견지했고 그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비재현적 입장이 꾸준히 자리하고 있었다.

5)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스투어트 홀은 “Encoding/Decoding”(1980)을 비롯한 자신의 많은 저작에서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대한 재해석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6)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포스트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논의 등이 해당된다. 또한 스투어트 홀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신의 글이나 입장을 새로운 흐름과 국면에서 다시 고찰하거나 수정하는데 언제나 적극적이었던 태도를 보였다. <제의를 통한 저항>에 대한 수정본 *New Introduction to Resistance through Rituals*(2008) 등이 대표적이다.

비재현 문화연구의 둘째 근원은 생성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지적 연구 전통이라 하겠다. 이 전통은 프랑스에서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타르드(Gabriel Tarde)와 질 들뢰즈(Gilles Deleuze), 독일에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페터 슬로터다이크(Peter Sloterdijk) 그리고 영국에서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를 포함한 급진적 경험주의자 그룹(Radical Empiricists)⁷⁾ 등과 접합하며 특히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레퍼토리를 갖게 되었다. 이들은 인식과 존재의 단절(rupture)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해 모방(imitation), 반복(repetition), 차이(difference)가 만들어 내는 '되기(becoming)'라는 존재론적 생성철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끌고 간 인물들이다. 어떤 면에서 비재현적 문화연구의 저작들도 '되기'의 존재론을 중심으로, 실증주의와 경험주의를 통한 보편적인 인식론을 지속적으로 제지, 중지하는 담론을 추적하거나 이러한 보편적 전개 양식에 반대하는 연구 태도를 일종의 생성적 작업이자 기풍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비재현적 문화연구를 고취시킨 세 번째 근원은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미셸 세르(Michel Serres), 베르나르 스티글레르(Bernard Stiegler) 등이 중심이 된 일련의 기술철학으로 무장한 질적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에선 모든 보편성이 거부되고 범주의 순수한 세계 대신 혼종들(hybrids)의 이질성과 흐름을 중심으로 세상이 탐구되는데,⁸⁾ 이들의 연구에서 처럼 요컨대 비재현적 문화연구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추적을 따르는 동시에 민속지학적 통찰력에도 충실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교인류학적 분석을 그 주된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비재현적 문화연구의 연구 방법론은 세계를 매우 다양한 '의사-객체(quasi-object)'가 증식하고 새로운 네트워킹이 현재 어떻게 지속, 변화되고 있는지 꾸준히 추적하여 그 흐름을 이해하는 '관계주의'에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네트워크라는 사건, 블랙박스 혹은 행위자는 자기 구성적인(self-organising) '형질 변환(transduction)'⁹⁾의 과정이자 결과로 언제나 일시적이며 잠재적인 다중적 실재라는 모습을

7) 대표적 저작으로 James, W. (1912). *Essays in Radical Empiricism*과 James, W. (1909/1996). *The Meaning of Truth and A Pluralistic Universe* 그리고 Deleuze, G. (1953). *Empiricism and Subjectivity*를 들 수 있고, '급진적 경험주의'를 지금의 네트워크 문화와 연결하여 뛰어나게 분석한 글로는 Mackenzie, A. (2011). *Wirelessness, Radical Empiricism in Network Cultures*를 들 수 있다.

8) 시몽동이 이야기한 '일시적(temporal)' 존재성을 지닌 기술적 대상의 준안정적 '유동(flux)'(Stiegler, 2011, p. 73) 논의라든지 인간과 기술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한 스티글레르(2011)의 '후생계통발생론(epiphylogenesis)' 역시 이러한 비재현적 문화연구의 존재론과 비교인류학적 방법론 사고에 필수적이다. 즉, 형질 변환의 속성을 의미하는 '트랜스덕션(transduction)'에 대한 논의에 인간, 사물, 환경 요소를 적용하면 이들의 관계성이 복잡한 다중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9) 형질 변환(transduction)은 프랑스 기술철학자 질베르 시몽동이 언급한 주체, 객체, 환경이 공진화하는 생성적 '되기(becoming)'의 과정(Simondon, 1992)이다.

씨는 ‘총체적 현실(collective reality)’로 여겨진다.

가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이라는 이름에서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하이픈으로 반드시 연결하도록 강조한 라투르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체 객체 환경 혹은 행위자와 네트워크는 사실 안과 밖, 내부와 외부, 인간 비인간 모두에 해당되는 위상학적인 연속의 흐름이자 구분 불가의 영역들이기도 하다. 비재현적 문화연구는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그 동안의 사회과학 연구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정교한, 검증된 도구적 뒷받침을 통한 현상 분석의 세분화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입장, 즉 도구적 해체를 통하여 현상 속의 무수한 새로움 속에 실재하는 그 무엇에 뒤돌아 다가가는 방법론의 입장에서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처럼 세계가 위상적(topological)이라면, 존재론적인 의문에서 세상이 실제 무엇과 같은지 그리고 인식론적 의문에서 세상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사이의 전통적 구분을 해체하여 결합하는, 즉 반드시 ‘더해 보고 오래 지켜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비재현적 문화연구의 철학적 인식이자 배경이라 하겠다. 더불어 이는 어느덧 쉽게 잊히고 있던 바로 초기 버밍엄 문화연구의 핵심 연구 기풍이기도 한 것이었다.

설명, 해명, 증명은 세계로부터 어떤 것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계에 더해진다는 점을 일단 수용하면, 이러한 해법은 상식이 된다. 성찰주의자와 그들의 선상대주의적(pre-relativist) 적들은 사물 자체로부터 지식을 빼내는 것을 꿈꾼다. 내 연구는 사물을 지구에 더하고자 하며, 그 선별 원리는 더 이상 설명과 현실 사이에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이런 이중적 환상은 해체되었다—가 아니라 여행을 했는지의 여부다(Latour, 1987, p.8).

2) 연구의 대상과 범주

그렇다면 비재현적 문화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과연 이것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알려진 주된 버밍엄 문화연구 전통에서의 시도들과 어떤 차이 혹은 공명지점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 흐름을 주창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문화이론가 가운데 한 명인 스리프트(Thrift, 2008)는 ‘비재현적 이론 (non-representational theory)’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독창적 시선에 입각한 일상생활의 정치나 생활세계에서의 흐름, 강도에 대한 연구로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신체성(embodiment), 정동(affect)과 감응(susceptibility)의 동력(dynamic),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기 생성적으로 시공간에 다르게 몰입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스리프트 자신도 지적한 바 있듯이, 존재의 정의는 지속적인 수정을 요하는 잠재태(multiplicities)라는 들뢰즈주의 비재현 연구 철학의 이러한 관점은 어떤 면에선 일시적 ‘무관심(apathy)’(Thrift, 2008)

이나 내버려 둬줄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내버려 둬 줄 혹은 중단과 이를 통한 후속적 개입이 기존 연구를 확장하는 새로운 생성적 단절의 계기라는 것이 비재현 연구자들의 또 다른 입장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중단과 확장이라는 실천적 견지는 소위 전통적 버밍엄 문화연구자와 동의어로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스투어트 홀의 후기 생에서의 지적 실천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처럼 일상의 삶과 사회적 실재에서의 다양한 시공간을 아울러 스타일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비재현 이론가들뿐 아니라 스투어트 홀 그 자신부터 지식의 가장자리에 언제나 존재하는, 탈주하는 실천을 정치적으로 재영토화하려는 목적에서 지각(perception), 재현(representation), 그리고 실천(practice)의 의미가 보편적으로 규정되거나 비정치화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다음으로, 비재현적 문화연구의 범주에 대한 경향성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 구분할 수 있겠다. 우선 기존 미디어 문화연구 영역 자체를 포스트적 시선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경향성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만 살펴보더라도 스투어트 홀 스스로 자신의 대표작 〈제의를 통한 저항(Resistance through Rituals)〉을 당시 시기 정세에 맞게 스스로 수정, 재해석한 *New Introduction to Resistance through Rituals*(2008)을 남겼고, 라시는 전통적 문화연구에서 전 지구적 문화연구로 시선의 범주를 확장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여 문화연구 진영의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던 *Power after Hegemony*(2007)를 저술했다. 문화지형학을 밀리유(milieu)와 메타 공간, 문화위상학으로 확대시켜 적용한 연구에는 *Deforming the figure: Topology and social imaginary*(Lash, 2012)와 *The Becoming of Topological Culture*(Lury, Terranova, & Parish, 2012)가 있으며 신자유주의 문화정치, 하위문화와 능동적 수용자 논의를 후기 베냐민 사상의 주된 범주인 법질서와 폭력, 그리스 철학 혹은 초기 기독교 사상과 결합하여 해석한 *Saint Paul*(Badiou, 2003)이나 *Homo Sacer*(Agamben, 1998)를 포함한 일련의 뛰어난 존재론적 문화연구의 시선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New feminist Media Culture*(Gilles, 2008)와 *Post Feminism*(McRobbie, 2004) 연구는 전 지구화 시대의 교육이주나 새로운 물질성의 주제를 포스트페미니즘의 시선에서 새롭게 다루었다.

영국에선 버밍엄 문화연구의 핵심 캠프로 불리는 골드스미스대학(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문화연구센터 연구자들이 레버훔미디어재단(The Leverhulme Media Trust)의 연구 지원 아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에 걸쳐 새로운 흐름의 흥미로운 미디어 문화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제임스 커런이 처음부터 끝까지 6년간 연구 책임자로 이끌었던 골드스미스 레버훔미디어리서치팀(The Goldsmiths Leverhulme Media Research Team)에는 같은 학교 동료 연구자들인

스콧 라쉬, 데이비드 몰리, 메튜 폴러, 닉 쿨드리, 안젤라 맥로비, 나탈리 펜튼, 데스 프리드만, 크리스 베리, 자라 아미드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미디어 문화연구자들이 결합했으며 무엇보다 주목을 끌었던 점은 이 프로젝트가 다루었던 연구 대상과 영역의 새로움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다섯 가지 세부 연구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각각은 다음과 같았다.

- 프로젝트 1. 뉴스의 공간(Spaces of News) 연구: 저널리즘 영역에서 뉴스 메시지가 아닌 뉴스 메시지의 흐름과 그것을 이끄는 공간적 특성을 주로 다룬 인터넷 환경 중심의 연구
- 프로젝트 2. 유비쿼터스 데이터 시기의 메타 데이터(Metadata In The Age of Ubiquitous Data) 연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메타 데이터의 생성, 유동에 대한 사회철학, 기술철학적 탐구
- 프로젝트 3. 공간 병합(Mediatising Place) 연구: 공익을 위해 창조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목표에서 온라인 공간의 자기 구성적 흐름에 대한 연구 진행
- 프로젝트 4. 이동하는 유럽(Europe in Motion): 유럽에서의 미디어 지리학과 지역 정체성 변화 추적
- 프로젝트 5. 모션 이미지 추적 (Tracking the Moving Image): 카이로, 상하이와 런던에서 이미지 테크놀로지가 추동하는 공적 공간 재구성에 대한 탐구

흔히 버밍엄 문화연구의 중심 학교로 (특히 한국에) 자주 소개되어지는 골드스미스대학의 미디어 문화연구자들이 최근 이처럼 6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 환경, 메타 데이터와 이동 이미지를 추적했다는 점은 초기에 현지 학계에서도 언뜻 쉽게 와 닿지 않았던 하나의 사건이자 이슈였다. 이는 곧 골드스미스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정치경제학, 버밍엄 문화연구 주도자들은 무수한 여타 동료 연구자들의 (한국의 학자들을 포함하여) 생각이나 예상과 매우 다르게 어느덧 모두가 익숙한 그들의 오래된 연구 주제와 방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¹⁰⁾

둘째, 정동·감응과 주체성, 신체성에 대한 산업적 구성과 관련한 탐구의 영역이다. 의식의 영역에서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 온 쿨드리의 *Media Rituals*(Couldry, 2003)로부터 비물질 노동, 프리캐리엇과 빈곤화를 다룬 여러 논의들¹¹⁾, 질과 프렛의 연구(Gilles

10) 이 프로젝트의 전체 연구 결과물은 <http://www.gold.ac.uk/media-research-centre/> 참조

11) 대표적으로 *The Cultural Industries*(Hesmondhalgh, 2007), 'User-generated content, free labour and the cultural industries' (Hesmondhalgh, 2010) 그리고 *Creative Labour: Media Work in Three Cultural*

& Pratt, 2008)와 블랙만(Blackman, 2012)까지 그 결과물들은 깊고 다양하다.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테크노사이언스와 관계된 집단 기억, 노스텔지어 산업 등과 관련된 시공동과 기술철학자들의 디지털 문화연구 성과들 역시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초개체화(transindividuation)'와 기억의 외재화에 따른 '프롤레타리아화(proletarianisation)'를 다룬 스티글레르의 일련의 저작들(Stigler, 2009; 2010; 2011)이나 뉴미디어의 인간의 신체성의 관계를 꾸준히 탐색한 한센과 헤일스의 연구들(Hansen, 2010),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문화 현상을 컴퓨터 연산 연구로 풀어낸 풀러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스테디(Software Studies)' 진영의 연구(Fuller, 2012), 뉴미디어를 체화된 시공간적 인식의 기술적 감염으로 바라보는 샘슨의 바이러스적 감염(Virality)(Sampson, 2012) 리서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물질, 사물, 환경 사이의 형질 변환적(transductive) 네트워크의 생성 흐름을 추적하려는 라투르주의자들의 일련의 ANT적 연구 성과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특히 ANT는 유럽 중심의, 학제적 성향이 깊은 과학기술학(STS) 연구자들이었던 브루노 라투르, 미셸 칼롱(Michel Callon), 존 로(John Law)를 중심으로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들뢰즈에 의해 새롭게 복원된 프랑스 철학자 타르드의 미시사회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ANT 연구자들은 타르드가 주장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라는 지적인 분석 대상을 세르(Michel Serres), 화이트헤드(Alfred N. Whitehead), 휴즈(Thomas P. Hughes) 등의 이론들¹²⁾과 점차 결합시키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읽어낸다.

마지막 방향성으로는 미학(aesthetics), 예술과 자본주의라는 전통적인 범주들의 새로운 결합을 읽어내려는 흐름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예술, 몸, 이미지, 물질, 기억, 감각, 놀이, 여가과 시공간이라는 요소는 상품, 언어, 정보,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과 교환의 대상, 언어적 저술의 형태, 합법칙성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연구에는 뉴미디어 문화 산업의 교환 가치를 다룬 루리 등의 연구(Lury et al, 2012), 예술 작업 참여자의 아마추어리즘과 욕망, 실천 등을 탐구하는 랑시에르의 *The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Ranciere, 2009), 새로운 상품 교환 시스템과 부채, 빛의 역사와 정치성에 대해 연구한 그라버의 *Debt*(Graeber, 2012)나 라자라토, 파리지, 테라노바 등 이탈리아 자율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러 연구들¹³⁾이 있다.

Industries (Hesmondhalgh & Baker, 2011)를 들 수 있다.

12) 미셸 세르의 과학철학 논의는 세르와 라투르의 대담집 <해명>(박동찬 옮김, 솔 1994), 감성론적 기호학은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 물질기호학은 존 로(John Law),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은 <과정과 실재: 유기체적 세계관의 구상>(오영환 옮김, 민음사, 2003), 그리고 휴즈의 기술 문화연구는 <테크놀로지, 창조와 욕망의 역사>(김정미 옮김, 플래닛미디어, 2008)가 대표적이다.

3) 방법론적 사례: 라시와 루리의 전 지구적 문화 산업 논의

지난 2007년, 영국의 문화연구자인 스콧 라시와 실리아 루리는 전 지구화 시대에서 자기 변형적인 문화 상품들의 이동과 흐름을 추적, 분석한 내용을 *Global Culture Industry* (2007)를 통해 처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연구는 비재현적 문화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는 곧 이어 다루게 될, 홀의 'EC/DC' 논의가 스스로에 의해 '문화 생산' 논의로 확장되었듯이 전 지구적 문화 흐름의 경향성으로도 또 다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대중적 상품을 중심으로 문화적 경계와 유동에 대해 추적한 이들의 연구는 문화와 경제 사이의 중요한 역사적, 구조적 변화를 다소 거시적으로 재정의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기도 했다. 그래서 문화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자본주의적 구조 사이의 관계가 문화 상품의 유동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연구는 이뤄졌다. 그 결론적인 주장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던 전 지구적 문화 산업 자체가 사회경제적인 하부구조(infrastructure)와 이데올로기적인 상부구조(superstructure) 간의 결합 형태를, 즉 경제와 문화가 언제나 서로를 재정의, 재구성하는 그러한 존재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였다. 실제 우리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정보와 기억이 결합하여 상품이 되고, 지식이 물질적 자산이 되며, 노동이 감정으로 이뤄지고 미디어가 사회성과 생명성을 가지는, 문화와 경제가 더 이상 분리 혹은 적대적이지 않는 현상들이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공간에서 사용자의 정보는 각종 기업 간 거래의 주요 기준이 되었고, 저작권이라는 형태를 통해 지식이 물질적 자산이 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으며, 서비스 산업 등에서 감정노동이라는 양식은 경영학 용어까지 보편화됐다. 그리고 애플의 시리(Siri)나 윈도 시리즈에서 보듯이 인터랙티브 기반 미디어 디바이스,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은 꾸준히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며 역사, 기억, 목숨을 가지며 사회적 삶의 형태를 지니는 인간적, 인격적 동반자로 인식된다. 라시 등(Lash et al., 2012)은 여기에서 더욱 나아가서 지금의 전 지구적 문화 공간은 형상적 탈형태화(figural deformation)를 통해 문화적 대상, 주체, 환경들이 차이와 경계를 끝없이 재생산하는 사회적 상상에 기반한 위상적 확장을 거쳐 글로벌 자본을 더욱 공고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문화연구자인 풀러와 고프는 최근 자신들의 저서 *Evil Media*(Fuller & Goffey, 2012)를 통해 전 지구적 디지털 시대에서의 문화를 다름 아닌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의 결합체로 바라보며 끝없는 새로움이 만들

13) 대표적으로 *Network Culture: Politics for the Information Age*(Terranova, 2004), *The Making of Indebted Man*(Lazzarato, 2011)가 있다.

어지는 문화 생성 과정에 대한 구조적 이해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라시와 루리(Lash & Lury, 2007)는 이러한 비재현 기반의 실증적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상품들의 사회적 형태가 글로벌 소비 네트워크의 흐름 속에서 개별 환경과의 상호 주체적인 접속 과정을 통해 언제나 다르게 재생산, 유지 지속되고 있다고 적절히 설명해 낸다. 이들은 나이키 운동화,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의 파생 상품들이나 유럽 프로축구 리그와 국가대항전 EURO 2012 같은 상품화 가능한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로 대표되는 '젊은 영국 예술 작가 그룹(YBA, Young British Artists)'을 각각의 고유한 브랜드 개념의 문화 상품으로 다루며, 이것들이 전 지구적 문화 유동 국면에서 독특한 (재)형태화 과정을 거쳐 계속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차별화되어 소비자에게 침투한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은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Castelle, 2006)와 아파두라이의 '전지구화의 흐름과 유동'(Appadurai, 1986) 논의를 자신들의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 대상들이 수용자들의 '참여 생산적 소비(co-productive consumption)'에 의존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잉태하는 가상의 축적 형태에 의해 더욱 산업적으로 고양된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그래서 이 상품들의 독특한 흐름은 다양한 '장(spheres)'(Sloterdijk, 1998; 1999; 2004)¹⁴에서 더 깊은 탈/재/초형태화(de/re/trans-formations)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현실에서 드러난다. 결국 생산과 소비, 주체와 객체, 환경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함께 결합하여 유동하는 문화적 흐름에 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꽤 명백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 조금 시선을 돌려보면 특히 감응, 공감 그리고 분노에 초점을 두는 최근의 일련의 인상학적 사회 분석 논의 등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4) 문화적 경계와 유동 연구에 대한 한국적 맥락

문화적 경계와 유동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 경향성을 한국 내 문화연구에서 이뤄진 분석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많아 보인다. 물론 최근의 연구들에서 수용자들의 일상적인 의미 재생산 과정을 이들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어느 정도 미리 규정된 범주에서의 전제를 넘어서는 상징적 투쟁의 관점에서 검증하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를 이루는 방식은 사전에 수용자들의 존재나 인식을 특정 구분에 의해 분류하고 이에 기

14) 슬로터다이크(Sloterdijk, 2011)는 3권으로 이뤄진 자신의 대표작 *Spheres* 시리즈에서 Bubbles, Globes and Foam을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시킨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공간을 다-초점 관점에 입각한 Blasen(Bubbles)의 환경으로 설명한다. 엄밀하게, Schaum(Foam)에서의 네트워크 형태인 것인데 여기서는 위상학적, 인류학적, 면역학적 그리고 기호학적 측면을 모두 가진다.

반, 현상을 판단하려는 다소 문화 지리학 혹은 문화 지형학적인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들의 경우 이러한 유동적 문화 흐름을 다소 새롭게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 상품의 생산 측면에서의 독특성을 고유한 소비문화와 동시 구성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인데 여기엔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특히 수용자의 몸이나 감성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며, 상호 결합하는지에 대한 연구들(김상호, 2009; 김예란, 2006)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방식인 텍스트, 담론, 재현, 수용자 중심의 분석 틀이 여전히 한국 문화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끊임없는 '생성(becoming)' 현상의 복잡성과 특수성에 대한 질문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외면되어 왔다는 점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 아직 잘 알려지지 못한 대표적인 논의의 핵심엔 새로운 공간성에 대한 사유 방식인 '밀리유'가 자리한다. 프랑스의 기술철학자인 시몽동(Simondon, 1992)에 의하면 밀리유(milieu)는 공간(space)과는 다른 개념이다. 밀리유는 '형질 변화적(transductive)'이고 '자기 결정적(self-determining)'인 기저(substrata)이자 동시에 환경을 의미한다(박성우, 2014).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밀리유야말로 확장된 개념으로의 상품이 교환되는 현재 미디어 산업에서 매우 핵심적인 공간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시몽동에게 밀리유는 자기 변형적 환경이자 메타-산업 공간(meta-industry space) 혹은 공간 후 공간(space-after-space)을 뜻한다. 이는 다름 아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재현적 문화 현상의 주요 무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밀리유는 기존의 담론 분석이나 기호학적 접근으로는 설명해 내기 어려운데 무엇보다 그 대상 자체가 다름 아닌 흐름이자 강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NS나 유튜브(YouTube) 공간은 모두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메타 공간 혹은 대중문화의 밀리유인데, 이는 곧 규칙, 연산(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위상적 소프트웨어에 데이터가 축적되는 어떤 흐름이자 환경 자체라는 의미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적 현상 속에서 밀리유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면 <강남스타일>이란 뮤직비디오의 글로벌 확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강정수와 김수철(2013)이 그 과정에서의 사건들을 잘 보여 주었듯이, 우선 유튜브란 글로벌 디지털 환경과 접속한 이 뮤직비디오는 이 후 유튜브 지수(YouTube index) 등 각종 분석 데이터, 미디어 리포트, 국내외 문화 산업 전략과 결합되고, 글로벌 대중들의 '따라하기'와 '점유하기' 같은 온·오프라인 수용과 실천, 전용이 적극 축적되었다. 그 과정에서 익히 알려진 엄청난 대중적 호응은 뮤직비디오, 수용자들, 유튜브 공간, 전 세계의 다양한 물리적 수용 공간, 미디어 재생산물 등이 모두 서로의 이익을 공모하며 다양하게 협력하여 공진화적인 '형질 변환'이 꾸준히 일어난, 라투르 식 표현에선 성공적으로 '번역'이 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

로 확장, 감염된 네트워크의 유동 과정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또한 〈강남스타일〉의 성공이 〈강남스타일〉 콘텐츠 질과는 그다지 상관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결국 우리 문화연구의 시급한 현실적 연구 방향 역시 의심의 여지없이 테크놀로지, 위상학적 문화 적용 그리고 대중문화의 (재)구성과 (재)형태화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3. 버밍엄 문화연구 다시 생각하기

사실 한국 문화연구는 특히 연구 방향성과 주제의 측면에서 버밍엄 문화연구와 많은 부분 상응한다고 여겨져 오고 있으며, 우리 비판언론학계에서 이러한 '전통적 영국 문화연구'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래서 특히 전술했던 현실의 토대 위에서 한국의 문화연구를 재맥락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근거하여 마지막으로 소위 버밍엄 문화연구를 다시 바라보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버밍엄 문화연구에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소환하여 강조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그 배경엔 그동안 한국의 문화연구에 막강한 이론적 토대 역할을 담당해 온 자양분인 버밍엄 문화연구 혹은 소위 '전통적 영국 문화연구(classical UK cultural studies)'에 그동안 어떠한 방식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려 혹시 버밍엄 문화연구 그 자체와 주요 연구자의 사유의 진전, 확장에 대해서조차 완전히 무관심해졌거나 심지어 무지, 오해했을지 모를 모습에 대한 성찰의 의도도 함께 자리한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의 한국 문화연구를 살펴보는 일과 앞에서 언급했던 비재현적 문화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작업은 공통적으로, 버밍엄 문화연구의 현재를 재고찰하는 작업을 통하여 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선 스튜어트 홀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버밍엄 문화연구자들의 최근 철학적, 연구 방법론적 방향성을 다루며 우리 문화연구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동시에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급하고 중요한 어떤 연구 기풍을 현 상황에 맞게 새로이 맥락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1) 재맥락화의 배경과 의도

아직까지 문화연구와 버밍엄 문화연구가 거의 동의어로 규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점은 사실 매우 한국적인 특이한 현상이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소위 버밍엄 문화연구, 조금 더 확장한다면 영미권 문화연구에 대한 오래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글이 마치 기존 버밍엄 문화연구적 경향성을 새로운 큰 범주의 지적 기획안으로 엮어 세우려는 이른바 빅 텐트적 기획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엔 무엇보다 그간 국내 연구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버밍엄 문화연구다웠다는 치열한 문화정치적 성격의 연구 전통이나 결과물 자체조차 실제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¹⁵⁾ 또한 이 글은 그동안의 한국 문화연구의 연구 경향성에 대해 인식론적, 방법론적 단절을 가해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재진입을 모색해 하려는 의도도 아니다. 대신 ‘지금 여기’의 국면에 적절한 사유 방식이나 연구 방법론에 대한 재고를 통해 기존의 아카데미아적인 한국 문화연구와 이를 이끌어 온 특정한 제도, 문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불어 비재현적 문화연구가 어떻게 국내 문화연구 진영의 생산성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새로이 논의해 보고자 함이다.

대표적으로 버밍엄 문화연구자의 대부 격인 스투어트 홀을 다시 중심에 두고 그의 핵심 저작인 ‘부호화/해독’ 논의에서부터 비재현적 방법론과 관련한 지점을 살펴보며 더불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어떻게 문화연구자로서 스스로 사유와 실천의 확장을 시도했는지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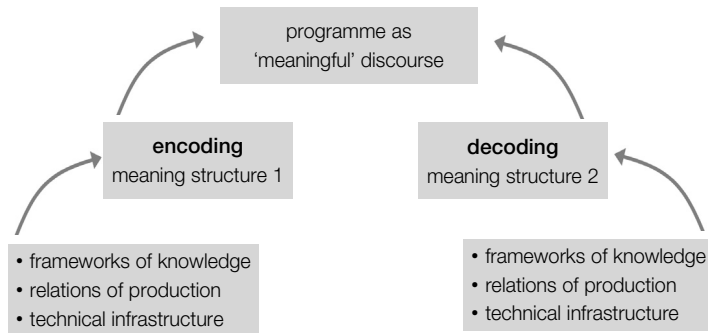
2) 스투어트 홀의 EC/DC 모델의 재해석과 비재현적 문화연구로의 확장

홀의 대표적 저작인 “부호화/해독”(이하 “EC/DC”) 논의를 다시 살펴보는 작업은 현 시기 전 지구적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 문화연구의 시선을 새롭게 확장하는 과정으로부터 이 작업의 한국식 맥락화 과정에까지 깊이 맞닿아 있다. 우선 홀의 그의 초기 저작을 전 생애와 결합하며 다시금 꼼꼼히 바라보는 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보다 이는 ‘추상에서 구체로’라고 하는 마르크스 사회학적 방법론이자 앞에서 언급한 ‘비재현적 방식의 문화연구’라는 구체적 실천 작업의 한 시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홀이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통해 귀감이 되었던 모습들은 그 동안 문화연구자들이 무수히 언급하고 사용해 오기만 한 익숙한 그의 이론적 용어들과 그 적용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런 점에서 실천이 수반되었던 문화연구자로서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큰 “EC/DC”의 면밀한 재독해가 필요하다. 이는 곧 홀의 생애 자체에서의 여러 국면들에 대한 포스트 EC/DC 적인 방향성 분석이 비재현적 문화연구의 또 하나의 훌륭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홀은 “Encoding/Decoding in a Television Discourse”(1980)에서 미디어 문화연구의 관점 아래 매스 커뮤니케이션 텍스트를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의 흐름 속 유동적 성격으로 개념화시켰다. 홀은 EC/DC의 단계에서 메시지뿐 아니라 송신자, 수신자와 배경—지식 체계, 생산 관계, 기술적 토대—모두가 강력한 텔레

15) 이 점과 관련하여 깊은 조연해 주신 이영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림 1. EC/DC 모델(홀, 1973)¹⁶⁾



비전 담론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접합의 국면들(moments of articulations/conjunctures)’에서 고유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는 구성, 배치, 그리고 출판 혹은 방송의 형태라는 다양한 네트워크 결합체로 정의, 번역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홀의 이 대표적인 텔레비전 담론 모델은 ‘텔레비전 미디어 담론’ 구성 과정의 전체적, 통합적, 유기적 이해를 도모하고 동시에 ‘텍스트 결정주의(textual determinism)’의 해체를 위해 쓰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해진다. 즉, 보편적으로 잘 알려지다시피 주어진 어떠한 텍스트로서, 단편 의미에서 미디어 콘텐츠/물질의 해독은 부호화에 반드시 조응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텍스트’에 대한 홀의 접근은 ‘컨텍스트’에 대한 접근으로 우선 어렵지 않게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홀 역시 포괄적 관점에서 타르드적 ‘관계주의자’라고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보인다.

(1) Encoding/Decoding 모델에 다시 다가가기

우선, 스투어트 홀이 그의 논문 “Encoding/Decoding”(1980)을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을 재독해하며 시작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 역시 홀의 마르크스주의적 사유의 기반을 다시 강조하는 작업으로 시작한다. 우선, EC/DC 논문에서 홀의 연구 목적이 단지 다양한 수용자의 해독 유형들—지배적, 교섭적, 저항적 해독—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일까? 대신, 그는 마르크

16) 유사한 관점에서 무어스(Moore, 2000)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술적 매체에 대한 개별 소비자의 경험과 이해를 텍스트로서 바라본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모두 같은 텍스트를 다르게 바라보고 응답하는데, 그 이유는 초기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방송과 이동 전화와 같은 개별 미디어 디바이스가 수용자들과 인제나 다르게, 즉 맥락적 특성의 차이와 결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홀의 제자이자 대표적 버밍엄 문화연구자인 몰리와 실버스톤 역시 이미 1992년에, 텔레비전 콘텍스트를 위한 디코딩 유형들과 관련한 수용자들의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날카롭게 주장한 바 있다(Moore, 2000).

스가 이야기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통합(the unity of capitalistic production)’ 만큼이나 ‘미디어 생산양식의 통합(the unity of media production)’ 국면들을 드러내는 것을 그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스의 주장에서 소비와 순환이 없는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의 의미가 없듯이, 홀에게 수용과 흐름을 고려치 않은 미디어(메시지) 생산 역시 의미가 없다. 둘째, 알튀세르의 ‘지배 내 구조(structure in dominance)’(Althusser, 1971)에 대한 개념에 흥미를 가졌던 홀은 알튀세르적 생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구조와 형태, 경계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넘나드는 미디어(담론) 생산으로 자신의 연구 관점을 확대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홀은 EC/DC의 각 과정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경제 구성체에서의 생산양식과 상품(재)생산 메커니즘의 논리(Marx, 1967; 1971; 1973) 아래에서 이해하며 동시에 급진적 경제결정론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상대적 자율성의 입장)을 취했다(Hall, 1980). 결국, 홀의 EC/DC 모델이 드러내 주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또 다른 함의는 ‘제2의 부호화 실천(secondary signifying/representation practices),’ 즉 1차적 메시지 수용/상품 소비 이후의 추가적인 실천 혹은 재생산 과정에 대한 가능성과 더욱 중요하게 연결된다. 홀의 이러한 유기적 관점은 결국 ‘사회적 실재는 논리적 동일성과 비논리적 차이성 모두와 상관이 있다’는 라클라우(Laclau, 1977)의 이야기와 상당 부분 공명하는데, 여기서 홀은 이데올로기적 담론 구성을 위한 ‘호명(interpellations)’의 과정이 점차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라클라우에게도 이처럼 호명의 과정은 필수불가결하게 정치적 활동, 실천과 연결되는 ‘압축(condensation),’ ‘배치(configuration)’의 단계들을 거쳐 작동한다고 간주된다.

텔레비전 메시지의 생산과 소비는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또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총체성(totality) 안에서의 서로 다른 국면들이다(Hall, 1980, p.130).

이처럼 홀의 관심은 미디어(담론)의 재생산을 전체적, 유기적 관점에서 구체화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그는 마르크스의 방법론적 도구들을 더욱 계승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회로나 루프로 개념화했다. 이러한 모델은 복잡한 관계 구조로서, 메시지의 수준에 대한 강조를 위해 송신자/메시지/수신자의 위치를 선형성을 바탕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 비판 받아왔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담론적으로 연결이 이뤄진 국면들의 결합을 통해 생산되고 유지되는 구조-생산, 유통, 분배/소비, 재생산-라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이러한 과정

을, 연결된 실천들의 결합— 하지만 각각은 특이성을 가지고 고유한 양식과 형태, 존재의 조건을 가지는— 을 통해 유지되는 '지배 내 복잡한 구조'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요강(Grundrisse)>과 <자본론>에서 제공된 상품 생산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접근은 어떻게 지속적인 회로가 '형태의 지속 (passage of form)'을 거쳐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날카롭게 가져온 장점을 더하고 있다(Hall, 1980, p.128).

위에서 인용된 홀의 이야기는 세 가지 상호 연결된 개념을 잘 설명한다. '통합(unity)'의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국면들(moments)'이 '형태의 지속(passage of forms)'에 의해 재생산(reproduction)을 이끄는데, 무엇보다 이 국면들은 '실천(practices)'을 통해 작동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확실히 특정한 형태와 방법의 재생산을 보증하지도 않는데 그 원인은 중층 결정된 '최종 심급(last instance)'의 존재와 수용자라는 가변적인 특수성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실재나 미디어 담론은 지속적인 재생산과 언제나 함께 하는데 홀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합의 국면들(articulations of conjuncture)'을 분석, 해체하고 탈구시킬 것을 주문하며 여기에 이른바 '사이 담론(inter-discourse)'을 위치시켜 볼 것을 주문한다.

사실 마르크스에 대한 고정된 시선들 가운데에는 그가 자본주의 상품 생산의 측면만을 강조한 '생산주의자(productivist)'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요강(Grundrisse)>(Marx, 1973)만 보더라도 사실 그는 사회적 실재의 형성이 '지배 내 구조(structure in dominance)'에서의 많은 결정 인자들 간의 상호적 결합을 거쳐 재생산되는 '실천의 통합(a unity of practices)'으로 이뤄진다는 통합적 생산-소비의 결합 틀을 이야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홀 역시 '커뮤니케이션 담론 구조의 통합'은 복잡한 차이들에 기반, 구성된다고 이야기하며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요강>에서 선택한 접근법과 유사한 통합적 방식을 따른다. 홀이 박사생 시절 당시 그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던 윌리엄스(Williams, 1974) 역시 일찍이 문화를 통합적 구조 아래서 다양한 힘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삶의 전체적 방식'으로 바라본 바 있다. 그런 점에서 EC/DC 모델은 '미디어 담론의 총체적 구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념비적 저작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실증적 연구에 의해 쉽게 규명될 수 있거나 뒷받침될 수 있는 표준적인 사회과학 이론 모델로는 보기 힘들다(Morley, 2006; Gurevitch, 1996; Scannell, 1996 참조). 이는 라투르의 ANT 연구가 실증적 검증의 대상이 되긴 어렵다는 점과도 유사하다. 홀의 EC/DC는 오히려 텍스트 연구와 수용자 연구를 문화 흐름의 전체적인 생산/재생산 구조와 함께 결합시킨 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이는 홀이 재현(representation)과 담론의 개념을 다양한 문화 흐름에서의 '국면 결합

(moments of articulations)’에 적합하도록 확장하는 시도, 즉 비재현적 네트워킹과의 연결 국면, 관계망 구성의 측면에서 결국 더 적절히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C/DC에서 다시 읽어 낼 수 있는 지점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어떻게 작은 어떤 것들이 큰 무언가에 영향을 주며 여기서 작은 것들과 큰 것들은 어떤 관계인가’와 ‘사람들이 재현의 문제를 다루며 어떻게 물질적 영역에서의 문화적 실천을 하는가’라는 점이다. 이는 ‘하나’와 ‘여럿’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타르드주의 미시사회학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 보면 홀은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을 단순히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를 ‘결합(articulation)’의 이름 아래 구체적인 상황들의 다양한 국면들로 연결, 확대시키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 자신의 다른 논문 “Notes on De-constructing The Popular”(1981)에 의하면 수용자 연구에 대한 그의 흥미 역시 결국 고정된 관점의 수용자 개념을 해체하기 위한 방법론적 기획이며, 이것이 바로 그가 EC/DC 논문을 작성한 배경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달리 말해 어떠한 텍스트에 필연적으로 누가(어떤 계급의 어떤 수용자가) 반응하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들이 텍스트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사회 문화적 조건에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가 자신에게 더욱 핵심적 관심사였다는 점이다. 수용자들은 그래서 홀에겐 더 이상 비유동적이지 않은 존재로 역사적 순간들의 어떤 결합들에서도 ‘상대적 자율성’ 아래 적극 호명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적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된다. 여기에다 푸코로부터 가져온 ‘담론’, 알튀세르가 이야기 한 ‘상대적 자율성’과 ‘중층 결정’은 홀의 “EC/DC” 재독해를 위한 또 다른 주요 핵심 개념들인데, 정작 홀은 이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규정하는 일보다는 어떻게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시급했다. 이를 위해 홀은 자신의 논문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1980)을 통해 이전 문화연구의 두 경향성인 문화주의와 구조주의라는 두 가지 패러다임 각각의 결점을 극복하려 이 둘의 긍정적 요인들, 즉 경험과 구조의 중요성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EC/DC 모델을 구조주의와 문화주의 사이에 비교적 적절히 가져다 쓰기 편하게 위치시키려는 의도이자 EC/DC 모델을 언제나 무수한 잠재태(multiplicities) 속에서 잘 적용되도록 고려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2) EC/DC와 문화생산/생산문화 논의의 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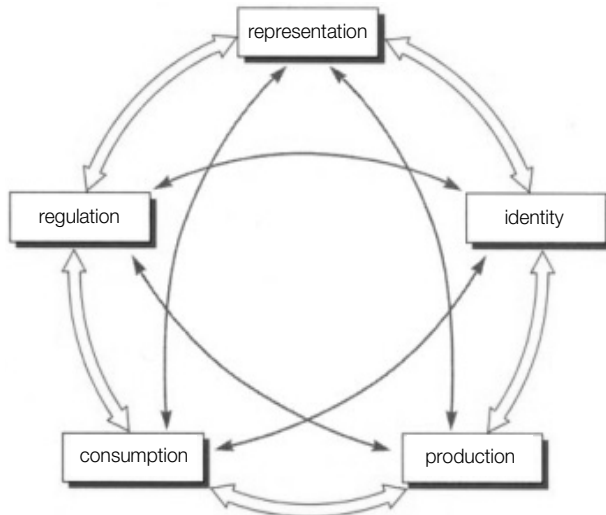
포괄적 관점에서 홀의 EC/DC는 그의 이후 저작인 ‘문화생산/생산문화(Production of Culture/Culture of Production)’ 모델(1997)과 함께 재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술했듯이 EC/DC는 원래부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메시지, 담론) 구성 과정에 대한 실증적 검

증을 위한 목적으로 쓰인 구체적인 이론 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EC/DC 모델과 문화생산론의 결합과 통합적 이해를 통하여 홀이 말하고자 한 내용은 '단순한 재현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총체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문화연구의 시선을 전환해야만 한다'고 라시가 "Power after Hegemony in Cultural Studies"(Lash, 2007)에서 주장한 이야기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많은 이론가들이 홀처럼 문화적 흐름과 유동의 통합적 이해에 관심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홀이 버밍엄 CCCS의 후임소장으로 자신의 자리를 넘겨준 리처드 존슨(Richard Johnson)은 '문화 다이어그램 연결론'(Johnson, 1986)을 주장하며 생산, 텍스트, 소비와 생성한 문화가 다양한 국면들에서 수용자의 실용적 활동과 접속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물질의 '다액센트성'은 차이와 경계를 이해하기 위한 서로 다른 문화적 표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다얀과 카츠(Dayan & Katz, 1992) 또한 수용자와 미디어 사이의 연결은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닌 시스템적이지 연결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홀은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재현(representation)과 기호학적 관심을 바탕으로 한 EC/DC 모델에서 지속적 생성에 근원한 문화정치학적 유동의 모델로 제시한 '문화 생산' 논의로 자신의 사유와 실천을 확대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즉, 그는 자신의 대표적 용어인 '담론적 접근 discursive approach)'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언어/재현이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말하는 기호학적 입장에서 재현의 효과와 결과가 어떻게 맥락의 흐름 속에서 확대,

그림 2. 문화생산/생산문화 모델(Hall, 1997)



출처: Paul Du Gay(1997), Production of culture/culture of production, London: the Open University

팽창되는지에 대한 사회정치적 강조로 연구의 방향성을 변화시킨 것이다. 코드/재현 작업에 기반한 홀의 ‘담론적 접근(discursive approach)’에서 점차 확대된 그의 연구 방향성은 다음의 세 가지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요약될 수 있다. 오리지널을 ‘미메시스(mimesis)’로 재현하는 ‘반영적 접근(reflective approach)’ 그리고 오리지널의 의미를 언어에 통해 전달하는 ‘의식적 접근(intentional approach)’,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기표 개념과 실천 작업을 통해 함께 직접 의미를 만드는 ‘구성적 접근(constructionist approach)’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로 ‘모방의 법칙’에서 타르드가 모방과 발명의 관계를 통해 재생산을 규정한 방식과 홀이 재현을 통한 생성되는 담론 재생산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홀 스스로도 자주 이야기했듯이 개별 주제들이 어떻게 다양한 담론적 구조에서의 장소들로 소환되는지를 마르크스, 알튀세르와 푸코가 정교화시켰다면 개인들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들이 사회적 공간과 실재에 지속적으로 네트워킹되는지에 홀 자신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홀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몰리의 “The Nationwide audiences”(Morley, 1980) 연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홀의 EC/DC 연구와는 완전히 별개인 연구로 보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다.¹⁷⁾ 이는 그동안 NWA가 홀의 EC/DC 모델의 구체적인 실증적 검증을 위해 고안되고 실행된 것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홀의 EC/DC는 미디어 문화 대상의 흐름과 통합성을 그리고, 몰리의 NWA는 수용자의 계급적 의미 재생산 논의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NWA의 견해가 전적으로 홀의 견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문화연구의 시선 역시 지금은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 다만 몰리의 연구에선 EC/DC 사이에서 사용된 코드에 의해 서로 다른 계급들의 ‘전형적 입장들’(Morley, 1992) 사이의 심각한 차이가 존재할 때 텍스트가 비정상적으로 해독되어진다고 언급한 에코의 ‘일탈적 해독(aberrant reading)’(1972) 개념이 새롭게 잘 드러났다. 반면 홀은 미디어 수용자들을 특정한 공간들에서의 특별한 결합에 의해, 그리고 텍스트와 ‘용도(use)’에 의해 언제나 새롭게 정의되는 ‘다른 종류의 사회적 통합의 구조화된 복합체(structured complex of social collectivities of different kinds)’(1980)로 바라본다(Neal, 1977; Morley, 1992).

17) 오히려 프랑크 파킨(Frank Parkin)의 개념(1971)인 주어진 계급 분류에서 발생하는 의식의 분류에 초점을 맞춘 ‘계급과 해독 코드(class and decoding codes)’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일탈적 해독(aberrant decoding)”(1972 in Morley, 1992)과 개념적 프레임워크에서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몰리가 자신의 독립적인 주장을 실증적으로 성공리에 검증을 해냈다고 인식하고 있는 연구에는 대표적으로 김수정(2004)의 논문이 있다.

재현(representation)에 대한 관점과 관련해선, 일찍이 하이데거(1998)조차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이를 정의했다. 들뢰즈(1996)에게도 재현은 반드시 넘어서 가야 하는 잠재적 상태 정도에서 이해된다. 이처럼 재현의 문제는 매스 미디어 텍스트의 재생산과 순환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넓은 과정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국면에서 텍스트의 고정된 의미란 영원히 연기된다는 점에서 비재현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핵심은 '선호된 해독'을 둘러싼 환경이자 조건이 된다. 이미 프랑크푸르트학과 특히 아도르노가 "On Popular Music"(Adorno, 1990)이나 "Culture Industry"(Adorno, 1991)에서 충분히 설명했듯이 문화 산업에서 부호화 프로세스의 내적 논리는 '상호 교환 가능성-유사 기능(interchangeability-similar function)'과 '의사-개별화(pseudo-individualisation-look different)'를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아도르노의 경우 대중문화 수용자를 지나치게 수동적, 무능한 존재로 바라본 관점에서 지나칠 정도의 일방적 비판을 받아 왔지만 사실 그가 이야기 한 권력과 힘에 대한 논의 즉 '누가 어떤 방식에서 무슨 의미를 만드는가(who creates which meanings in which ways)'라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매우 유의미하다. 이는 특히 비재현 투쟁을 둘러싼 구성적 환경의 토대인 홀의 '선호된 독해' 관련 논의에선 더욱 그러하다.

의미를 재해하기 위한 수용자의 힘은 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중앙적인 미디어 기관과 같을 수 없다. ... 우리는 어떠한 단순한 텍스트 결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텍스트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는 순진한 생각도 단호히 버려야 한다. ... (Morley, 1992, p. 31)

결국 미디어 물질/담론은 전적으로 다의적이지도 않지만, 또 산업과 수용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나 새롭게 시스템과 네트워킹된다. 마찬가지로 어디에 '지배적/저항적/대안적 의미'가 위치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지금의 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현 시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자체가 지속적인 사회적 소통 공간과 자본주의 물질 관계의 재구축이기 때문이며 달리 말하자면 끊임없는 공간의 시간화 과정 혹은 공간의 개체화 과정과 결합되기 때문이다. 로빈스(Robins, 1995)는 커뮤니케이션 정치학을 둘러싼 이슈들은 반드시 공간(space and place)의 정치학과 수렴한다고까지 이야기 한다. 그래서 그에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질문은 곧 범위의 질문이자 그래서 커뮤니티의 본성에 대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EC/DC"의 재독해를 통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인코딩과 디코딩의 연결,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

떻게 주체적/신체적/감응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시간화, 개체화되어 가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홀의 재 독해로부터 산업과 수용자로부터의 '선호된 독해'가 '어떤 공간과 수용자들의 어떠한 결합 하에서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우리는 비재현적 시각과 방법론에 의해 바라보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홀은 EC/DC와 문화 생산 논의에서 결국 '두 번째 부호화 과정(message decoding)'이 '첫 번째 부호화(message encoding)' 만큼이나 사회 정치적 적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바라본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부호화 과정은 '언제나 이미(always already)' 두 번째 부호화와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재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의미 생성은 자연히 또 다른 생성, 즉 비재현적 요소를 자연스레 포섭한다. 현재의 뉴미디어와 테크노 사이언스, 그리고 디지털 사회 문화 요인들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국면들을 더 복잡하고, 두껍고 감응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르게 개체화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첫 번째 부호화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생성, 경계, 흔적, 기억들의 자취다. 우리를 둘러싼 이 자취들의 방향성이야말로 바로 필자가 비재현적 문화 연구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하는 배경이자 물질이 된다. 이처럼 미디어 문화연구에서 스투어트 홀은 그간 모두에게 익숙한 범위를 넘어, 특히 미디어 텍스트와 수용자가 해독 뿐 아니라 2, 3차적 생산의 과정까지 다양한 국면들에서 연계된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동시에 이들 사이에서 진보적 개입을 위한 충분한 시공간 이야기를 하도록 이끈다. 홀에게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처럼 인코딩 디코딩 단계 모두에서 텍스트, 수용자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조건이자 환경인 것이다. 홀이 "EC/DC"(1980)와 "문화적 생산"(1997)에서 주장한, 그러나 대부분 간과되어온, 또 다른 핵심 지점은 바로, 어떻게 두 번째 부호화가 또 다른 부호화가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 개입의 문제이자 과업이며, 이것이야말로 그의 후기 생애와 전체 삶의 궤적 속 실천을 통해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며 다시 무겁게 다가온다.

4. 절박함과 추상성: 후기 스투어트 홀의 방법론적 사유와 실천 그리고 비재현적 접근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박함에 대하여 문화연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지적인 실천으로 문화연구에 심각하게 발을 디디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충동, 이의 덧없음과 비현실성, 그리고 문화연구가 얼마나 초라하게 이것들을 기록해 왔는지, 얼마나 미약하게 무엇을 변화시켜 왔는지, 혹은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반드시 느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분명한 긴장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을 둘러싼 이론들이 당신을 정신 나가게, 얼빠지게 만든 것일 뿐이다(Hall, 2007, 골드스미스대학교 문화연구센터 강연록, Globalization: Cartographies of Power).

2014년 초 전해진 스투어트 홀의 부고는 그에게서 받아 온 중요한 성찰, 상속된 절박함을 돌아보게 해 주었다. 홀은 끊임없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스로 자신이 기틀을 마련한 문화연구를 상호작용(interaction), 즉 논쟁과 급진적 정치의 장으로 그리며 아카데미와 외부 사회 곧 세상과의 직접적 연계(engagement)를 요구했다. 홀이 일생을 거쳐 몸소 절박하게 보여 주고 실천한 이러한 정신은 무엇보다 문화연구를 번성케 한 토대의 역할을 굳건히 해 온 방법론적 자율성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홀은 “EC/DC”(1980)와 “문화적 생산 모델”(1997)을 거치며 문화연구의 사유와 실천적 방법론을 스스로 확장시켰고, 이것이야말로 그 자신이 후기 생애에서 두드러졌던 비재현적 실천이라는 방법론적 전환을 감행한 이유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투어트 홀이 일생을 바쳐 앞서서 실천한 방법론적 자율성이라는 것이 한때 정치적 긴박함의 국면에 자리했었던 문화연구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와 특성에 비추어볼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나? 아니면 이러한 자율성이 지금의 매우 수사학적이거나 미학적인 현실로부터 더욱 추상적으로 정치적 독해를 포괄해 버리는가? 혹은 이러한 자율성을 향한 움직임이 맑시스트 전통으로부터 문화연구의 본성을 빼앗아 버리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시기에 문화연구 진영에 필요한 자극인가? 결국 후기 스투어트 홀로부터의 그러한 변화 지점들은 현재의 현실 정치에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과연 지금의 한국 문화연구자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러한 후기 홀의 생애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문화연구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실천적 모습, 즉 EC/DC적으로 말하자면, 2차, 3차 부호화 실천 행위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선 스투어트 홀의 후기, 특히 그가 개방 대학에서 정년퇴임한 후인, 90년대 후반부터의 자취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실 상황에서 스투어트 홀의 연구와 실천 방향성, 목표, (반)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성공에서부터 실패, 부적절, 도전과 실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식과 담론을 사회적 기구의 바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스스로의 절박함을 살펴보고, 한국 문화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여정까지 조금이나마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스투어트 홀과 문화연구라는 학술적 그리고 현실 정치적 동력을 그

현재적 적절성과 함께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1) 성공하지 못한 리빙턴 플레이스 프로젝트, 다시 청년으로 현장으로...

홀의 오랜, 가까운 제자이며, 이른바 버밍엄 문화연구 진영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안젤라 맥로비가 기억한 홀은 ‘허세나 가식과는 거리가 먼, 그러나 멋지고 세련된 학자(unpretentious, stylish academic)’(McRobbie, 2014)다. 심지어 자신이 강의한 개방대학(Open University) TV 방송물에서 스스로를 자주 그렇게 칭하기도 했듯이, 그동안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스튜어트 홀의 이미지 역시 날카로운 대중 지식인 혹은 모범적 학자의 그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마지막 10여 년의 삶과 실천의 모습 속엔 조금은 의외인, 익숙지 않은 장면들이 자주 두드러진다. 굳이 비유하자면, 그의 초기 영국 생활 당시 모습과 굉장히 닮아 보인다. 최고 지성을 사랑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머튼 칼리지 박사 과정 장학생 신분을 도중에 스스로 던져 버린 후,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교사와 <뉴 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 멤버로 활동하며,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현장에서부터 심각하게 공부, 실천하려던 자신의 청년 시절 모습의 새로운 부활인 것이다.

여기에서 “놀라울 정도로 격동기(a wonderfully turbulent period)”(McRobbie, 2014)였던 버밍엄대학 현대문화연구소(CCCS) 시절 이후 홀이 정년퇴임 시기까지 머물렀던 개방 대학과 INIVA(Institute of International Visual Art)를 이끌었던 지금의 스튜어트 홀 도서관(Stuart Hall Library) 갤러리를 포함한 리빙턴 플레이스(Rivington Place)는 그의 삶에서 마지막 부분의 실천, 도전의 여정이 함께 머물렀던 중요한 공간들이다.¹⁸⁾ 홀의 후기 생애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맥로비, 몰리 등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헌사한 부고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듯이 대부분 찬사의 일색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흑인과 아시안 예술가들에게 지적인 리더십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 대부분이다(Morley & Schwarz, 2014). 사실, 이들의 이야기처럼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홀의 두드러진 저작들의 시선에 의해 영향을 받아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러한 예술가들의 작품 가운데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다.¹⁹⁾ 하지만 몰리, 맥로비 등 대부분의 소위 ‘버밍엄/전통적 영국 문화연구

18) 국제시각예술연구소(INIVA)는 시각예술을 매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담론을 활발히 이끌어내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 학술 기관으로 그 실적들은 언제나 아카이빙되어 지속적인 연구들의 콘텍스트 역할을 담당한다. 동시대 예술에서 이야기되는 다양성에 작업의 초점을 맞추고 기본적으로는 기존 시각예술계가 내포하고 있는 위계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재미있는 점은 작품이 아닌 작품의 배경에서 새로움을 더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주로 실시하며 전시, 강좌, 리서치, 토크 등 모든 과정이 INIVA 아카이브를 통해 기록되어 보존된다.

자들' 그리고 그의 후기 생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지는 못하는 일반적인 대중들의 생각처럼, 그의 생애 마지막 대부분을 차지했던 소위 '영국 블랙 아트 프로젝트²⁰⁾'는 홀 본인에게 그리고 그가 접합하려 했던 현실 사회에서 그의 이전 명성만큼이나 성공적이었을까?

스튜어트 홀의 건강, 특히 신장 쪽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때는 2008년 말 무렵이었다. 필자의 기억 속에, 당시 홀은 폴 길로이(Paul Gilroy)와 함께 공동 작업 중이었던 '블랙 브리튼: 사진 역사(Black Britain: A Photographic History)' 프로젝트에서 어쩔 수 없이 도중하차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이 대중에 처음 알려지게 된 건 탄자니아 출신 아프리카계 영국인 건축가 데이비드 아드야에(David Adjaye)가 디자인하여 건립한 800만 파운드짜리 리빙턴 플레이스(Livington Place)에서 홀이 직접 성대하게 마련해 준 이 책의 출판기념회를 통해서였다. 쇼디치라는 과거 YBA(Young British Art)의 발상지에 등지를 튼 이 리빙턴 플레이스에서 오랜 시간 INIVA와 ABP(Association of Black Photographers) 리더 역할(의장)을 충실히 수행한 홀은 창조성과 다양성을 위한 공적인 예술 공간 운영이라는 자신의 중요한 실천을 끝까지 묵묵히 수행한다. 홀은 여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화두였던 '절합(Conjuncture)'이라는 날카로운 역사적 감성을 유지하려 했다. 홀이 이끌었던 이 공공 예술 프로젝트는 언제나 '블랙 브리튼(Black Britain)'의 역사를 말하고 소개하며, 관련된 사고의 방식을 새롭게 만드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표현대로 늦은 나이에 도전 '다큐멘터리 충동'(Back, 2009)에 의한 현장 복귀는 그로 하여금 미디어 형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판단을 필수적으로 수반케 하면서 비재현적인 방법론으로 사유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게 했다.

홀은 사회학자 레스 백(Les Back)과 가진 대담(2009)에서 리빙턴 플레이스에서의 자신의 실천과 경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나의 비주얼 아트로의 관심 전환을 두고, 다들 최근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그 쪽, 특히 비주얼 이미지와 작업에 오랫동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나는 현대 미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동시에 솔직히 내 분야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느낀다. …(웃음)… 사람들이 과거 CCCS에 얼마나 많은 예술

19) 대표적으로 크리스 오피리(Chris Ofili),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와 스티브 맥퀸(Steve McQueen)와 최근 그의 삶을 영화화한 존 아콤포라(John Akomfrah)와 스모킹 도그(Smoking Dog) 등이 있다

20) 안젤라 맥로비의 경우, 스투어트 홀의 후기 사유와 실천을 다룬 *Stuart Hall, Cultural Studies and the rise of Black and Asian British Art*라는 저서를 2016년 출판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가들은 있었는지 알면 매우 놀란다. 실제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예술가, 예술의 영역이 문화연구에 들어와 있는가? ...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과거 CCCS 연구와 영화 연구와의 관계이다. 당시 우리가 매우 관심 있었던 영화 연구를 CCCS 멤버들이 갑자기 줄였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 때 우리에게엔 영화를 보는 만큼 실컷 만들고, 또 유통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TV가 수월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술 작업, 실천에 대한 문화연구의 역할이 훨씬 더 넓어졌다. 지금은 특히 비주얼 아트의 폭발적 시기기 때문이다(Hall, 2009, 백과의 대답록).

홀의 후기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INIVA와 ABP에서의 비주얼 아트 제작, 창작 활동과의 연계이다. 그런데 이는 그가 '재현과 담론 이론의 대가'라는 일반적 인식에서 볼 때 조금은 벗어나 있는 지점이다. 국제적 기반의 영상 예술가 지원 기구라는 의미의 INIVA는 다양한 예술가, 큐레이터 그리고 작가들을 돕기 위해 정부 기금에 의해 런던에 설립되었던 공적 예술 지원 단체이다. 물리적으로도 이곳은 전시 공간, 예술 창작 지원 도서관(스튜어트 홀 도서관이라고 추후 이름 붙여짐), 그리고 비주얼 아트 센터(공연, 연습 무대)를 지니고 있다. 실제 18년의 역사 동안 홀의 지도 아래 많은 중요한 영국 및 해외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전시, 공연,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대표적으로 조각가 휴 로크(Hew Locke)나 영화감독 지네 세디라(Zineb Sedira)에서부터 영국 화가 키마시 돈커(Kimathi Donker) 등이 모두 이곳을 거쳐 갔다. 지금도 이곳에선 문화적으로 다양한 예술가와 큐레이터들을 지원할 목적을 가진 영국 정부(Arts Council England)의 재정 지원 아래 대중들과 예술가들이 꾸준히 협업하도록 하고 있다.

분명히 1990년대 이래로 스투어트 홀은 '영국 블랙 아트 운동(British Black Arts Movement, BAM)'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이는 존 아콤프라와 스모킹 도그의 영화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The Stuart Hall Project)>(2013)와 얼마 전 테이트 브리튼에서 전시된 3면 설치 작품 <The Unfinished Conversation>(2012)의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국내 문화연구자들에게도 익숙한, 그와 관련한 그동안의 '인용할 만한 인용들(quotable quotes)'을 넘어서보면, 그의 후기 삶의 궤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디어에서의 재현(representation)에 '비재현적'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진짜 의미를 '실천적'으로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두가 어느덧 TV 스크린에서의 다양성(diversity)의 중요성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안 그는 이미 화면에서 마이너리티를 재현하는 가치를 오히려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다시 문제 제기, 결합시키려 한 최초의 문화연구 실천가가 되어 있었다. 실제로 그

는 스크린에 자신을 직접 개입시켜 드러내는 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다.²¹⁾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 필름 작업을 함께 했던 아콕프라(2013)에 의하면 홀은 운동선수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같은 영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면서 TV에 등장하는 유명 블랙 피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셔(Fisher, 2014)는 2000년대까지 백인 남성이 아니면서 유로 아메리칸 이외의 지역에서 현대 미술을 교육받거나 흥미를 가졌던 미술 역사가나 비평가들은 비교적 소수였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사실 모더니즘은 거의 백인의 독점 영역이었고 여성과 타자들은 열등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오래된 배제는 새로운 세대로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는 젊은 흑인과 아시안 아티스트들의 급진적(보수적) 정치화였다고 홀은 바라본다. 이를 위해 홀은 무엇보다 스스로가 이들의 후방 멘토가 되고자 했다. 홀은 이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자신들의 갤러리, 매거진, 아카이브에서 자신들의 아프리카 아메리칸, 카리브, 아시안 문화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한 고민과 실천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사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관련 담론들이 다양한 경향과 사회 운동을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이후 반인종, 민족주의, 페미니즘, 젠더와 정체성 정치, 문화와 영화 이론 등이 번성했다.²²⁾ 여기에다 자신의 후기 생애에서의 비재현적 실천을 통해 홀은 중요한 지식인의 집합체에 다른 의미에서 새롭게 포함될 수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포스트맑시즘적 혹은 뉴레프트적 문화연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정치적 구조에서 각기 다르게 호명되는지를 자신의 후기 생의 실천을 통해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적 접근법은 대중문화 분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홀은 결국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 재현뿐 아니라 해체와 실천의 정치학까지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모두 추구한 것이 되는 셈이다.

흑인 혹은 아시안 예술가들의 '자기게토화(self-ghettoization)'에 대한 이러한 후기 홀의 사회적 참여와 접근은 '제한적인 정체성 정치'에만 허우적대던 '전통적 버밍엄 문화연구'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홀의 이 같은 사유와 실천은 많은 이들이 사회 정치적 담론뿐 아니라 미학적 관계성에 대해서까지 열광적으로 고민케 만들었다. INIVA와 ABP로 전해진 홀의 유산은 1990년대 말 이 프로젝트들의 초창기 성공에 절대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전 지구화와 예술의 상업화는 이 프로젝트들의

21) 이 점은 그의 거의 모든 버밍엄 문화 연구자들, 대표적으로 안젤라 맥로비, 데이비드 몰리, 폴 질로이 등이 극도로 미디어 출연, 특히 TV 방송 영상 노출을 꺼리는 모습과도 대비된다.

22) 대표적인 주창자로 에드워드 사이드, 호미 바바, 가야트리 스피박, 그리고 스텐턴 홀 등이 있다.

초기 유산마저 부분적으로는 금방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이끌었다. 사실 이런 점을 예측한 이는 1990년대 말까지도 극히 드물었으며 결국 새로운 조건에서 이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부흥시키는 데 홀의 시도 역시 실패한 것이 되고 만다. 어떠한 경우에도 BAM(British Black Arts Movement)을 충실히 따랐던 새로운 흑인 아시안 비주얼 아티스트들의 세대—대표적으로 크리스 오피리(Chris Ofili), 잉카 쇼니바레(Yinka Shonibare)와 스티브 맥퀸(Steve McQueen)—의 경우만 보더라도 비록 그들은 성공적인 국제적 실천을 했지만 이들이 직접 홀에게 빛진 부분은 많지 않아 보인다. 아마 그들은 홀보다는 1980, 1990년대 BAM에서 더 많이 배웠다고 말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Fisher, 2014).

여기에서 홀은 특히 미학적 실천 부분에서 자신의 전문성 부족을 어렵지 않게 고백하곤 했다. 그리고 흑인과 아시안 예술가의 문화 연구적 영향력을 둘러싼 자신의 논의에 대해서도 고심 끝에 부적절했다고 실토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특유의 관대함으로 돌파했다고 보인다. 이 점들은 그의 에세이 “Assembling the 1980s: The Deluge and After”(2005)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이 글에서 홀은 비주얼 아트와 그의 지적 여정 그리고 BAM 모두를 일깨워 준 다층적 문화 담론 사이의 갈등적 관계 속에서 결국 자신의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담담히 설명한다. 이처럼 홀의 유산은 그의 유명한 출판물과 대중 강연록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도전 그리고 실패까지 담담히 인정하는 열정적인 문화연구 실천가의 롤 모델로서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예술과 예술사 그리고 현대 미술에 대해 특별히 더 배우길 원한다. 최근 7, 8년간 관련된 저술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자신감 이상의 그 어떤 것에 기반해서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이 분야 역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다. 실제 내 작업이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예술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내 글을 매우 형식적으로, 그들에 적합하게 받아들인다. 나는 이 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Hall: Jeremy Gilbert, 2014에서 인용).

2) 상대적 자율성, 문화연구 방법론 그리고 전략적 수정

문화연구라는 분야에서 적어도 모두가 쉽게 동의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적 기풍 가운데엔 ‘문화연구는 간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 기획이자 실천’이라는 점이 자리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화연구에서 스투어트 홀이 방법론적으로 가장 강조한 지점 역시 이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후기의 스투어트 홀은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문화연구의 기풍, 즉 문화연구는 하나의 학문 영역(discipline)이 아니므로 방법론에

서 인터(inter) 혹은 트랜스(trans) 영역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급작스럽게 양면적 태도로 입장을 수정한다. 이는 그의 2007년 에세이 “Epilogue: Through the Prism of and Intellectual Life”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그의 도전적인 입장 재정립은 다분히 현 시기 문화투쟁을 둘러싼 전략적인 개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discipline’라는 용어가 그 자체로 모호한 개념을 가진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어느덧 지적, 제도적 학문 분과로 자리 잡아 버린 것 같은 문화연구 진영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려는 자신만의 특유의 방법론적 기획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영국만 하더라도 문화연구가 기존의 미디어 문화연구 관련 조직(주로 센터의 형태를 띠) 뿐 아니라 문화 예술 융합, 문화 콘텐츠 산업, 예술 경영, 창조 산업 경영이라는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대학에서 엄연히 새로운 분과 영역으로 자꾸 넓게 자리 잡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어느덧 영국 대학들은 하나의 교육적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포괄적 의미의 문화연구를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홀은 이를 일종의 ‘학술영역의 감시(disciplinary policing)’(Hall, 2007)로 바라본다. 실제 그가 자신의 CCCS 전임 소장이었던 리처드 호가트(Richard Hoggart)와 함께 여러 의미에서 많은 공을 들인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²³⁾의 학과 조직 체계만 보더라도 문화연구로 이 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자 2000년대 말 이래로 학교 측에서 각종 유사 학과들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지나치게 양산하여 최근 관련 학내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홀이 바라본 우려 역시 결국 이러한 지점에서 수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홀의 ‘학술 영역의 감시’ 주장처럼 현재 융·복합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아래 세계 여러 대학들에서 문화 연구와 여러 흐름의 예술 작업(art practice)이 결합하고 있으며 인문 사회과학에서 역시 ‘유사 결합(quasi-disciplines)’ 혹은 ‘부실 융·복합(few qualified disciplines)’을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앞섰던 문제의식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결국 홀이 이야기한 ‘학술영역의 감시’는 보편적인 전 지구적 환경에서 더욱 강력하고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는 어디에서나 자원 감소와 지표 위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공통적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홀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자신의 핵심 사유와 방법론, 영향력마저도 이것이 공식화되고 제도화되어 버리면 언젠든 과감하고 폐기하거나 새롭게 또 저항하고 지연시켰다. 학제 간 연구라는 홀의 오래된 방법론의 급작스런 입장 변화의 배경 역시 이처럼 일관성을 가지고 무엇이든 안착화되어 버리는 시스템화에 대한 자신의 거부감을 또 다시

23) 이 대학의 경우, 본부 건물은 RHB(Richard Hoggart Building), 미디어·문화 관련 건물이 SHB(Stuart Hall Building)로 공식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두 사람과 문화연구가 이 학교 명성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지나치게 솔직히 그리고 절박하게 드러내었던 그의 용기임에 분명하다. 그가 이러한 방법론적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길버트(Gilbert, 2014)의 설명에 의하면 홀은 비록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실천과 개입, 실험 정신을 복돋우었지만—민속지학에서부터 미디어 콘텐츠 분석과 순수 이론 분석 틀까지—동시에 그는 언제나 일관성 있게 전체적 목적이나 개별 공유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았다. 그 목표는 다름 아닌, 문화연구가 언제나 권력에 대한 개입과 실천이었고 모든 사회적 스케일에서 다양한 권력 관계의 다층적 작동과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도전적 문제 제기였다. 이러한 그의 방법론적 사유의 자율성은 1997년 출판된 그의 인터뷰집 *Radical Philosophy*에서부터 두드러진다. 즉, 문화연구의 궁극적 방향성은 그람시의 용어이며 홀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인 ‘절합(the conjuncture)’ 정신인데 특정한 국면에서 가능한 정치적 결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 경제적 양상들을 가지려는 기풍을 위해선 이런 절합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한 점에서 홀은 자신이 강조했던 학제 간 방법론이 산업적으로 전횡되는 현 국면에서 원래의 자기 입장을 뒤집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엔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개입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절박함이 들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그의 우려처럼 현재 한국의 대학과 아카데미아는 어느덧 자본주의 시대 강의 공장(teaching factory)이 되어 가고 있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3) 집단 작업과 내부 저항의 기풍

맥로비(McRobbie, 2014)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버밍엄 CCCS시절부터 지금까지도 홀의 주변을 둘러싸고 비교적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도 있다. 우선 집단 저술의 기풍이다. 대학에서의 엄격한 학제적 구분 전통이나 교수 학생 간 위계적 구분과 상관없이 집단적이며 자유로운 글쓰기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워킹 그룹, 독서 그룹, 저술 그룹(working group, reading group, writing group)’과 같은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 즉, 여기서는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써서 공유하므로 그 어떤 심판관의 판결 없이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글을 쓰는 분위기에 익숙해진다. 두 번째로 탈위계성(non-hierarchy)의 전통이다. 이러한 탈위계성의 전통은 단순히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맥로비의 회상 속에서도 당시 홀의 버밍엄 세미나 시간에 넘쳐나던 일반 청중들과 때론 전 유럽에서 날아온 사람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거나 싸구려 중고 가게에서 산 옷들을 입고 시몬 드 보바르 풍의 헤어스타일을 한 언더스테이트 엘레강스(understated elegance) 대중 청중들의 모습들로 여전히 남아 다. 이와 같은 전통은 홀의 유산이 비교적 남아 는 곳들, 대

표적으로 골드스미스대학, 리빙턴 플레이스 등에서 지금까지 잘 계승되어 언제나 공개강좌의 형태로 대학원 수업들이 진행되거나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미나 내용이 블로그,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또한 버밍엄 시절 수 없이 많은 내부(대학원생) 시위와 저항이 있었듯 유사한 전통 역시 어느 정도 꾸준히 계승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획만 보더라도 문화연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교수, 스승들을 학술적으로 비판해 보는 목적의 정기 세미나, 예를 들어 골드스미스대학의 문화연구센터 대학원생들이 주도한 2008년 여름의 'CCSATHQ: Attack the (cultural studies) headquarters' 세미나, 2011년 영국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주도 등 다수의 이벤트들이 있었고 거기엔 이러한 모습을 언제나 격려해 주는, 특히 (후기) 홀의 실천적 유산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홀은 반엘리트주의자로 권력과 재물, 명성을 추구하는 속물 지식인과 끝까지 거리를 두었다. 대신 마지막 투병 시절에조차 자신의 신장 투석을 담당하던 간호사들과 그 자녀들의 대학 입학시험(A-레벨 테스트)을 위한 사회학 코스워크에 대해 토론할 정도로 친화적이었고(McRobbie, 2014) 명예를 중시하는 옥스브리지와 같은 유명 학교 대신 언제나 이스트 런던의 폴리테크닉대학과 같은 직업학교들에서 만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더 좋아했다. 당연히 홀에겐 박사(Ph.D)라는 학위조차 그다지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것이었다.²⁴⁾ 뿐만 아니라 홀은 2000년대 이후 많은 예술가들과의 공개 대담(conversation) 시리즈에도 적극 가담하게 된다. 홀과 대담을 가졌던 대표적 아티스트로는 데이비드 베일리(David A Bailey), 소니아 보이스(Sonia Boyce), 아이작 줄리엔(Isaac Julien), 존 아콤폴라(John Akomfrah), 칠라 버먼(Chila Berman)을 들 수 있다.

5. 나가며

어느덧 국내외에서 '새로운 문화연구(new cultural studies)'라는 다소 낯설면서도, 꽤 익숙한 흐름들의 영역이 부지불식간에 커지고 있다. 적어도 새로운 시/공간성, 전 지구화와 로컬 기반의 상호적 침투,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신체성, 정동, 감응에 대한 연구, 기술철학과 경험적 분석이 함께 어우러져 날카롭게 무장된 그러한 비판적 연구 영역의 필요성과 시

24) 이는 비단 그뿐 아니라, 최고의 언론학자인 제임스 커런을 포함한 상당수의 세계적인 미디어 학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급성에 동의한다면 분명 이러한 점은 버밍엄 문화연구에 대한 성찰적 계승과 재맥락화 속에서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는 소위 ‘비재현적 문화연구(non-representational cultural studies)’라는 흐름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 기반 소비, 예술과 액티비즘, 저항의 새로운 연대, 디지털 기술 비평, 그리고 탈 태화, 변형과 생성 같은 주제들이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현 시기 한국 문화연구의 연구 중심에 자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필자는 지나치게 재현과 담론 중심적 사고에 집중화 된 한국 문화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실에서 시급한 영역들인 새롭고 강력한 탈경계화와 탈영토화, 그리고 동시에 끊임없이 수정하며 (재)등장하는 문화 현상들을 여기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른바 ‘비재현적 문화연구’에 대한 시급한 맥락화와 요구를 통해 이야기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비재현적 연구는 다름 아닌 초기 버밍엄 문화연구 자체에서부터 스스로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던 또 다른 결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후기 스투어트 홀의 생애를 비재현적 관점과 결합시켜 살펴본 이 기회를 통해 필자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연구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했다. 그동안 국내 미디어 문화연구에 막강한 이론적 토대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소위 ‘전통적 영국 문화연구(classical UK cultural studies)’였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연구를 살펴보고 전망하는 일은 버밍엄 문화연구의 현재를 재고찰하는 작업과 분리되어선 안 되었고 그래서 짧은 이 글에선 주로 후기 스투어트 홀의 사유와 현실에 밀착된 방법론적 방향성과 비재현적 실천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사실 한국 문화연구는 버밍엄 문화연구와 많은 부분에서(특히 연구 방향성과 주제) 거의 한배를 탄 것처럼 여겨져 오고 있고, 우리 비판언론학계에서 이러한 ‘전통적 영국 문화연구’-스튜어트 홀의 후기 이전-의 영향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매우 한국적이며 일시적, 특수한 현상일 뿐이다. 바로 그 사실을 스투어트 홀의 대표 저작들에 대한 재독해와 후기 삶의 실천적 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조금이나마 발견해 보기를 희망해 보았다. 스투어트 홀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진정한 지식인, 최고의 계급 전사, 그리고 모범적인 계급 실천가로 모두에게 남아 있을 책임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결국 문화연구는 결코 엔터프라이즈적인 비판이론이었던 적이 없다는 홀의 이야기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아로새기고 있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한다.

참고 문헌

- 강정수·김수철 (2013). 케이팝에서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에 대한 고찰: 강남스타일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0권 1호, 84-120.
- 김상호 (2009). 확장된 몸, 스며든 기술: 맥루한 명제에 관한 현상학적 해석. <언론과학연구>, 9권 2호, 167-206.
- 김예란 (2006). 소녀성과 육체의 미디어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역사의 자기성찰적 해석. <미디어 젠더 & 문화>, 5권, 8-40.
- 박성우 (2014). 전지구적 문화, 문화산업 비판: 새로운 미디어 교환 시스템과 환영적 초개체화.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2호, 371-410.
- Adorno, T. (1990). On popular music. In S. Frith, & A. Goodwin(Eds.), *On record: Rock, pop, and the written word*. New York: Pantheon Books.
- Adorno, T. (1991). The culture industry. In J. M. Bernstein(Ed.), *Selected essays on mass culture*. London: Routledge.
- Agamben, G.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D. Heller-Roazen, Tra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Althusser, L. (1971). Ideology and the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Althusser, L. (B. Brewster, Tran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Althusser, L. (1977). For Marx, L. Althusser. (B. Brewster, Trans.). London: New Left Books.
- Appadurai, A. (1990). Disjunction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Theory, Culture and Society*, 7, 2-3.
-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diou, A. (2003). *Saint Paul: The foundation of universalism*. (R. Brassier, Tra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iley, D. et al. (Eds.) (2005). Assembling the 1980s: The deluge and after In *2005 collection Shades of Black*.
- Blackman, L. (2012). *Immaterial Body*. London: SAGE.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London: Blackwell.
- Curran, J., & Morley, D. (Eds.) (2006). *Media and cultural theory*.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 Couldry, N. (2003). *Media rituals*. London: Routledge.
- Dayan, D., & Katz, E. (1992). *Media even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uller, M. (2005). *Media ecologies: Materialist energies in art and technoculture*. Cambridge: MIT Press.
- Fuller, M., & Goffey, A. (2012). *Evil media*. Cambridge: MIT press.
- Gilbert, J. (2014). Stuart Hall and cultural studies. *Radical Philosophy*.
- Gill, R. (2008). Reinventing romance: New Feminities and chick it. *Feminist Media Studies*, 6, 4.
- Gill, R., & Pratt, A. (2008). In the social factory?: Immaterial labour, precariousness and cultural work. *Theory, Culture & Society*, 25, 1.

- Golding, P., Murdock, G., & Schlesinger, P.(Eds.)(1986). *Communicating politics: Mass communications and the political process*. New York: Holmes & Meier.
- Graeber, D. (2012).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Melville House.
-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Q. Hoare, & G. Nowell Tran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Hall, S. (1980). Encoding/Decoding In S. Hall et. al.(Eds.),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1972-79*. London: Hutchinson.
- Hall, S. (1980).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 *Media, Culture, and Society*, 2.
- Hall, S. (1981). Note on deconstructing “the popular” In R. Samuel(Ed.), *People’s history and socialist theory*. London: Routledge.
- Hall, S. (1988). *The hard road to renewal: Thatcherism and the crisis of the left*. London: Verso.
- Hall, S. (1991). The local and the global: Globalization and ethnicity. In A. D. King(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 System: Contemporary conditions for the representation of identity*. London: Macmilan.
- Hall, S. (1993 a).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P. Williams, and L. Chrisman(Eds.), *Colonial discourses and post-colonial theory*.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Hall, S. (1993 b). Which public, whose service?, All our future: The changing role and purpose of the BBC, *The BBC charter review series, No. 1*. London: BFI.
- Hall, S. (2007). Epilogue: Through the prism of and intellectual life. In B. Meeks(Ed.), *Culture, politics, race and diaspora: The thought of Stuart Hall*. London.
- Hall, S. (2009). At home and not at home: Stuart Hall in conversation with Les Back. *Cultural Studies*, 23(4). pp.658-688.
- Hall, S.(Ed.)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 Hall, S. et. al.(Eds.) (1980). *Culture, media, language: Working papers in cultural studies 1972-79*. London: Hutchinson.
- Hall, S., & Gay, P. (Eds.) (1996).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 Hansen, M., & Michell. W. (Eds.) (2010). *Critical terms for media stud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degger, M. (1998). *Pathmarks/Martin Heidegger* W. McNeill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R. (1986). What is cultural studies anyway?. *Social Text*, 16.
- Kim, S. J. (2004). Rereading David Morley’s “The nationwide audience.” *Cultural Studies*, 18(1).
- Laclau, E. (1977).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Capitalism, fascism, populism*. London: NLB.
- Lash, S. (2007). Power after hegemony: Cultural studies in muta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24(3).
- Lash, S.(2012). Deforming the figure: Topology and the social imaginary. *Theory, Culture, & Society*, 29.
- Lash, S., & Lury, C. (2007). *Global culture industry: The mediation of things*. Cambridge: Polity.
- Latour, B.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ing through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2004). *Politics of nature: How to bring the sciences into democracy*. Cambridge: Harvard

- University Press.
- Latour, B. et al. (2010). 홍성욱(역). <인간 사물 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 Livingston, S. (1998). *Making sense of television: The psychology of audience interpret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ivingston, S. (1999). New media, new audiences? [On-Line] *LSE Research Online*. Retrieved from <http://eprints.les.ac.uk/archive/00000391>.
- Lury, C. et al. (2012). Introduc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29.
- McRobbie, A. (2004). Post feminism and popular culture. *Feminist Media Studies*, 4(3).
- McRobbie, A. (2014. 2. 14). Times with Stuart. *Open Democracy*. pp. A1, A4.
- Marx, K. (1971).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K. Marx(S. Ryazanskaya Trans.). London: Lawrence & Wishat.
- Marx, K.(1973). *Grundrisse: Foundation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K. Marx(M. Nicolaus Trans.). London: Allen Lane.
- Moore, S. (2000). *Media and everyday life in modern societ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oore, S. (2003). The doubling of place: Electronic media, time-space arrangemen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N. Couldry, & A. McCarthy(Eds.), *Media space: Place, scale and culture in a media age*. London: Routledge.
- Morley, D. (1980). *The nationwide audience*. London: BFI.
- Morley, D. (1986). *Family television: Cultural power and domestic leisure*. London: Comedia.
- Morley, D. (2006). Unanswered questions in audience research. *The Communication Review*, 9.
- Morley, D., & Robins, K. (1995). *Spaces of identity: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orley, D., & Schwarz, B. (2014, 2, 10). Stuart hall obituary. *Guardian*.
- Murdock, G. (1982). Large corporations and the control of the communications industries. In M. Gurevitch et al.(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Methuen.
-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Social Order*. London: McGibbon and Kee.
- Radical Philosophy (May/June 2014). Stuart Hall and the black arts movement.
- Ranciere, J. (2009). The aesthetic dimension: Aesthetics, politics, knowledge. *Culture Inquiry*, 36.
- Robins, K. (2000). *Times of the technoculture: From the information society to the virtual life*. London: Routledge.
- Simondon, G. (1992). The genesis of the individual. J. Crary, & S. Kwinter(Eds.), *Incorporations*. New York: Zone Books.
- Sampson, T. (2012). *Virality: Contagion theory in the age of network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Silverstone, R. (1988). Television myth and culture. In J. Carey.(Ed.), *Media myths and narratives*. Newbury Park: SAGE.
- Silverstone, R., Hirsch, E., & Morley, D. (Eds.)(1992). *Consuming Technolo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loterdijk, P. (2011). *Sphere, vol. 1: Bubbles* (H. Wieland Trans.). Cambridge, MA: MIT Press.
- Stiegler, B. (2009). The theater of individuation: Phase-shift and resolution in Simondon and Heidegger. *Parrhesia*, 7.

Stiegler, B. (2010). *For a new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London: Polity.

Stiegler, B. (2011). *Technics and time 3*. (S. Barker Tra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Tarde, G. (1903). *The laws of imitation*. London: General Books.

Thrift, N. (2008). *Non-representational theory*. London: Routledge.

Williams, R. (1974).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London: Fontana.

투고일자: 2015. 02. 01. 게재확정일자: 2015. 03. 23. 최종수정일자: 2015. 03. 26.

Re-reading Birmingham Cultural Studies for 'Non-representational Cultural Studies' in South Korea

with Stuart Hall's Philosophy and Methodology

Sungwoo Park

Assistant Professor, Woosong University

This paper points ou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non-representational cultural studies' in South Korea. For this, Stuart Hall's seminal research "Encoding/Decoding" (1980) is to be re-read thoroughly with articulation of his later practices. Along with, this research looks at how non-representational cultural studies can expand the scope of understanding various contemporary phenomenon of our society usually untold by mainstream cultural studies' themes and methods which focus more on abstract division and representational discourses. Notably, Stuart Hall's influential early writings and practical later engagements could bring us to think more seriously not only where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goes but also where cultural studies in South Korea should go. This article narrows the attention into Hall's EC/DC theory and related research-practical activity influenced by his own philosophy. Indeed, cultural studies in South Korea still seems to be almost same as early Birmingham cultural studies especially in the aspects like research direction and theme; however, that is quite unusual in some points. These points are to be explicated by this attempt of following Hall's meaningful life-long trajectory as a cultural activist as well as media theorist.

KEYWORDS Non-representational cultural studies, Stuart Hall, Birmingham cultural studies, Korean cultural studies